



2014년 한국잡지협회 정기총회 “언론 3대 단체로서 위상 높이겠다”

한국잡지협회(회장 남궁영훈)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창의 명예회장 등 역대 회장들을 비롯한 잡지인 70여명이 참석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남궁영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협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됐다”라며 “한국잡지협회는 지난 1년 동안 회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과 협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을 병행해 추진했다. 그 결과 잡지협회를 보는 대외적인 시각이 높아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문, 방송과 함께 3대 언론단체로서의 잡지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잡지인이 잡지언론인으로서의 대우를 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궁영훈 회장은 또 “회원들이 보기에 다소 흠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올해는 더욱 열심히 활동해서 회원들 모두가 만족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남궁영훈 회장 개회사, 전자총회 회의록 접수, 총회 의사록 서명인

선출,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의안으로 2013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안), 2014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안), 정관개정(안) 심의, 기타사항 등이 상정됐다.

2013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안), 2014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관개정(안) 심의는 사무국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바로 시행하되 정관개정은 회원의 2/3이상 출석, 출석인원의 2/3가 의결해야만 수정이 가능하므로 회원들의 서면동의를 얻는 것으로 수정됐다.

한편 한국잡지협회는 2014년도 사업으로 잡지산업 진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잡지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추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 ▲재교육을 통한 잡지실무인력 전문화 ▲잡지산업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

행하고, 잡지콘텐츠 품질제고 및 디지털화 사업을 위해 ▲우수콘텐츠 잡지 지원 및 보급 ▲U-매거진 플랫폼 구축 ▲K-매거진 포털사이트 구축 ▲고잡지 디지털화 ▲취재지원 및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 등을 진행하고, 독자인구 저변확대 및 회원사 경영구조 개선사업을 위해 ▲2014코리아매거진페스티벌 개최 ▲전국민 잡지읽기 수기공모 시행 ▲잡지 유통구조의 개선 추진 ▲잡지 우송요금 절감 및 경영효율화 추진 ▲잡지광고 활성화 도모 ▲정부공익광고 대행수수료 보전확대 ▲잡지후원제도 도입 및 소외계층 잡지지원 등을 진행하고, 글로벌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네트워크 활용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류잡지 번역지원 및 해외홍보 강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타 연례적인 행사는 검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키로 했다.☞